

# 북미 정상 막 오른 하노이 담판

### 트럼프-김정은 1박 2일 간 5차례 이상 만남 예상 하노이선언에 담길 비핵화 상응조치 내용 주목 상징적 선언 넘어 가시적 성과 도출해야 의미

북미의 최고지도자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승부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부터 1박 2일 동안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세기의 핵 담판을 벌인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를 북미 정상 간 역사적인 회담에 당사국은 물론, 전세계의 관심이 하노이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 이를 결인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양국 정상이 어디까지 합의해 하노이 공동선언에 담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 두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다.

당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을 담은 포괄적인 공동성명 합의문을 이뤘다.

그러나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핵 신고와 제재완화,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교착상태 국면을 이

어졌다. 그러나 올해 1월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 대통령과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서 교환을 통해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두 정상의 교감이 이뤄지면서 2차 정상회담 준비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19~21일 스톡홀름에서 최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비전 특별대표 간 첫 실무회담이 열렸고 2차례 평양협상, 3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실무접촉이 계속되면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의제조율이 이뤄졌다.

특히 당일치기로 이뤄졌던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1박2일로 진행된다. 두 정상은 이를 동안 최소 5차례 이상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베트남 하노이에 나란히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회담 둘째 날인 28일 두 정상은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주고 받는 본격적인 핵 담판을 벌인다.

양 정상은 공식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한 비핵화 조치와 이를 결인할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주고 받는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28일 회담은 오전 단독회담으로 시작해 확대회담-업무 오찬-공동성명 서명식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차 회담 당시 카펠라 호텔에서 두 정상이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이번 2차 회담에서도 산책 등 이벤트성 행사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하루 동안 공식 회담을 가진 두 정상은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하노이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번 2차회담에서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공동성명발표와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회담 성과와 분위기가 좋을 경우 두 정상이 함께 기자회견 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에선 북미 두 정상의 만남 자체로도 정치적 상징성이 있었지만 이번 회담에선 상징성을 넘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하노이 선언에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비핵화가 다시 속도를 내지, 아니면 협상 동력을 잃고 교착상태에 빠질지 중대한 향방이 판가름난다는 점에서 이를 통한 전세계의 시선은 하노이로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클린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깨끗한 선거문화, 우리 모두 클린 선거해요”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구강청결제 증정 이벤트 ‘화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와 유권자가 함께 클린 선거를 만들어 가자는 뜻에서 후보자 등에게 ‘구강청결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어 화제다.

도내 각 구·시·군선거위원회에서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시 모든 후보자에게 구강청결제를 제공했다. 이번 이벤트는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자제하고 후보자 상호간에 격려와 긍정적인 언어 사용 등을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들이 올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조합을 잘 이끌어 나갈 참일꾼을 선출하는데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도 재정여건 공개 “살림규모·재정효율화 역대 최고”

### 전년대비 예산규모 10.1% 증가한 7조 530억원 사회복지비율 37.4%·통합재정수지 824억원 흑자

전북도는 예산기준에 따른 2019년 전라북도 재정공시'를 통해 올해 재정여건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 계획, 재정운용성과 4개 분야 18개 항목을 공표했다.

예산규모면에서는 처음으로 7조원 대로 진입하는 7조 530억원, 행안부 공시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1.6%, 재정자립도는 39.6%로 전년도 수준 이고, 현행기준으로는 각각 17.01%, 35.02%다.

통합재정수지는 824억원 흑자를 이루어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도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7조 530억원으로, 2018년 대비 6,451억원이 증가했다.

예산규모 증가율이 전년대비 10.1%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북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세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1.6%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 36.9%보다 15.3%가 낮다.

지방세확충 노력 등으로 전년대비 자체세입 3.1%(327억원) 증가, 의존 수입 증가율(12.9%)이 예산규모 증가율(9.7%)보다 3.2% 더 크게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2% 감소했다.

자체수입에 자부채원을 더한 재정자립도는 39.6%이며, 자부채원 확충 노력으로 자체세입이 3.1%(327억원) 증가하여 현행기준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회계 기준 내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하여 흑자를 표현한다.

도의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5,464억원 증가한 5조 9,927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824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민 관심이 많은 재정지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비율은 37.4%(2018년 36.9%), 자체사업비율은 22.1%(18년 24.1%), 보조사업 비율은 66.7%(18년 65.5%)로 나타났다.

/김진성 기자

## 의병의 중심지였던 전북 지역 독립운동사 재조명

### 도·3·1운동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현대적 계승 방향 모색

전북도(도지사 송하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과 전라일보(사장 유동성)가 주관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2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3·1운동 100주년 전북의 독립운동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전북지역의 3·1운동을 통한 현재와 미래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계승된 영향을 중심으로, 한말 후기 의병의 중심지였던 전북 지역 독립운동사 조명을 위해 기획됐다.

기조강연에서는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이 '동학에서 3·1운동까지-독립운동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맹수 총장은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했던 이상부터 3·1운동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혁명이 이르는 과정을 살펴봤다. 특히, 3·1운동에 참여한 여러 인물 가운데 전북의 김영일, 박준승 선생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과정 설명했다.

박맹수 총장은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은 비폭력 운동으로 일관됐고, 대외적으로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사타그라하운동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에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일제강점기 전북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김형목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김형목 책임연구위원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수탈의 '최전선'이었던 전북지역에서 3·1운동 이후 전개된 문화계몽운동과 학생운동, 청년운동, 신간회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이를 통해 전북 지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음을 부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춘구 국민연금공단 감사는 김제 성덕 출신 해학 이기(李斤)의 삶과 사상을 조명했다. 특히 한말의 대한자강회 활동, 자신회의 조직과 오적 암살 시도, 호남학회 조직 등 중앙에서의 활약을 규명했다. 이는 기존 한말 후기 의병에 무게가 실려 있던 연구

경향의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강조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에서는 윤상원 전북대 사학과 교수가 '전북 지역 독립운동사의 과제와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윤상원 교수는 전문 연구자의 절대 부족과 이로 인한 연구 경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내 전문 연구인력 확충, 전문 연구소 설치, 관계기관 지원, 도내 독립운동사 연구 담당 기관 설치를 제안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전라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적으로도 접근했다.

이어 함한희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주용 원광대 교수, 김건우 전주대 교수, 오대륙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박정민 전북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